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9.

몽골 ICT 환경 분석

■ 송영민*

1. 개요

몽골(Mongolia)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7배 (156만km²)이며 세계에서 18번째로 넓은 반면, 그 인구는 324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또한, 국토의 42%는 사막, 9%가 산림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토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이다.

몽골은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당 체제 하의 공화제 국가를 수립한 이후, 세계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고 복수 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하여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할트마긴 바툴가(Khaltmaagiin Battulga, 이하 ‘바툴가’)가 당선되며 제 5대 몽골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툴가 대통령은 몽골에서 제일 오래된 정당이자 현재 몽골 의회 제1당인 인민당이 아닌 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몽골의 첫 번째 민주당 출신이었던 前대통령 차히야깅 엘벡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¹⁾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43)531-4204, youngms@kisdi.re.kr

** 본 동향은 국제협력연구본부 개발협력연구실에서 시리즈로 진행 중인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의 일부로 작성하였다.

1) 2009년 당선된 첫 번째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 두 차례의 총리를 역임하여 부패 척결과 개혁 정책을 추진했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을 연임하였으나, 민주당 집권기(2012~2016) 동안 외국인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정당 내 계파 간 갈등, 빈부격차 심화, 물가 상승,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다시 집권정당이 되었다. 몽골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2017년 상반기 IMF 확대금융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긴축 재정정책 실행과 2018년 말 중소기업발전기금의 부정대출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고조되었다. 한편 몽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통계청에 의하면 몽골은 2019년 기준 전체 수출의 84%를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등 광업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 자원가격 하락과 함께 몽골 내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 확산 등 부정적 투자환경이 부각되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이탈 등으로 재정난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몽골은 2013년 신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신뢰 회복 및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MF 확대금융 프로그램 도입 및 석탄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FDI 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

몽골의 국제관계는 최대 수출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중립노선을 유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지키고 있다. 한편, 몽골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제3의 이웃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2016년 7월 몽골에서 개최된 ASEM회의 당시 몽골은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협상을 연내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몽골의 제 6대 교역대상국으로, 2019년 기준 3.23억 달러의 교역 현황을 기록하였다. 또한, 몽골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2018년까지 9.2억

달러의 유·무상원조가 지원되었으며, 향후 그 협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UN, ITU 등이 제시하는 ICT 지수·지표 및 Budde Comm이 2019년 3월에 발표한 『Mongolia: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Statistics and Analyses』 보고서 내용 중 ICT 내용을 발췌 등의 자료를 통하여 ICT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몽골 ICT 현황 분석

(1) ICT 발전 현황

몽골의 ICT 발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주변 나라들과의 비교를 위해 현재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을 기반으로, 신북방 대상 국가²⁾ 및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살펴보면, 몽골은 전체 176개국 중 91위(통합지수 4.96)를 기록하며 전년도(87위, 통합지수 4.91)대비 하락한 순위를 보여 주며 전 세계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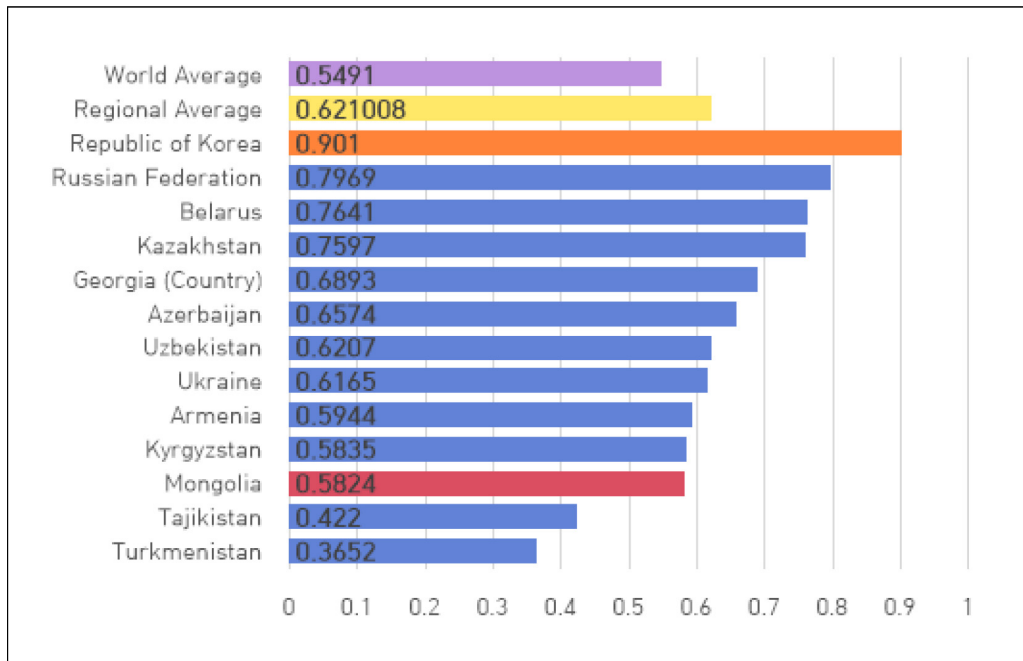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2018년 발표한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에서 몽골은 193개국 중 92위(0.5824/1점 만점)를 차지하며 상위국(High EGDI 그룹, 지수 0.50에서 0.75 사이)에 포함되었다.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신북방 대상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임(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0. 2. 1.)

3) ITU는 2017년 IDI 평가요소들을 일부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합성 및 데이터의 질적·양적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해 2018년에는 IDI를 발표하지 않았음. 현재 기존의 방법론(2017년 이전)으로 2019년 IDI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음. 이에 본고에서는 2017년 IDI는 수치 제시만을 하고, 전자정부발전지수(EGDI)와 네트워크준비지수(NRI)를 통한 신북방 대상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함

아래의 [그림 1]은 신북방 국가들의 EGDI 비교를 위해 몽골을 포함한 신북방 12개 국가(수치 없는 국가 미포함) 및 한국의 수치, 12개국 평균 및 세계 평균 EGDI 수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신북방 국가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비교



자료: UN(2018), 재구성

주 1. 신북방 대상국가 중 몰도바는 EGDI 수치가 없어 포함되지 않음

2. 신북방 대상국가 중 중국(동북3성)은 중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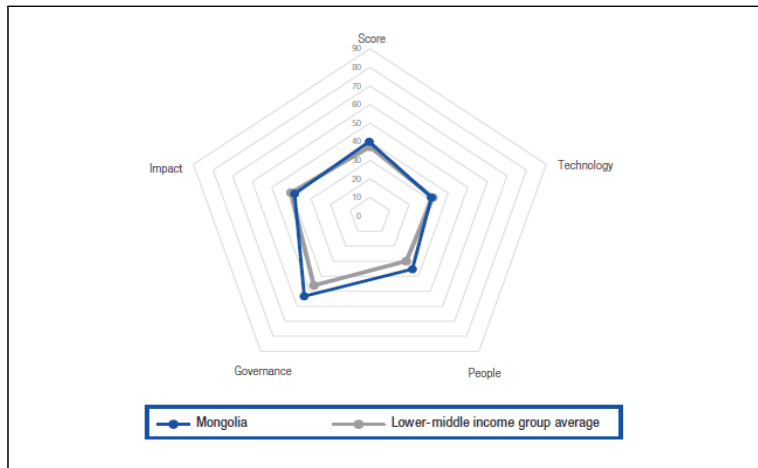
2018년 기준,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북방 국가들은 상위국 혹은 최상위국(Very High EGDI 그룹, 지수 0.75에서 1.0 사이)에 속한다. 이렇듯 신북방 국가들의 전자정부지수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데에는 이들 국가에서 정보화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를 목표로 국가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세우고 발전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몽골의 수치는 세계 평균 수치(0.5491)보다는 높게 나왔으나, 주변 신북방 국가들과 비

교했을 때에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몽골은 특히 세부지수 중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아주 낮은 수치(0.3602)를 기록했는데, 이는 몽골의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유선통신 및 유선 브로드밴드 등의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ortulans Institute(PI)에서 발표한 2019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NRI)⁴⁾ 순위에 따르면, 몽골은 121개국 중 90위(39.91점)를 기록하였다. NRI의 세부지수는 각각 기술(Technology)지수 95위, 사람(People)지수 82위, 거버넌스(Governance)지수 80위, 영향(Impact)지수 97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하위소득국 평균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몽골이 이와 같이 하위권에 머문 데 영향을 미친 큰 요인은 기술 전문인력 부족, 하이테크산업의 부재 및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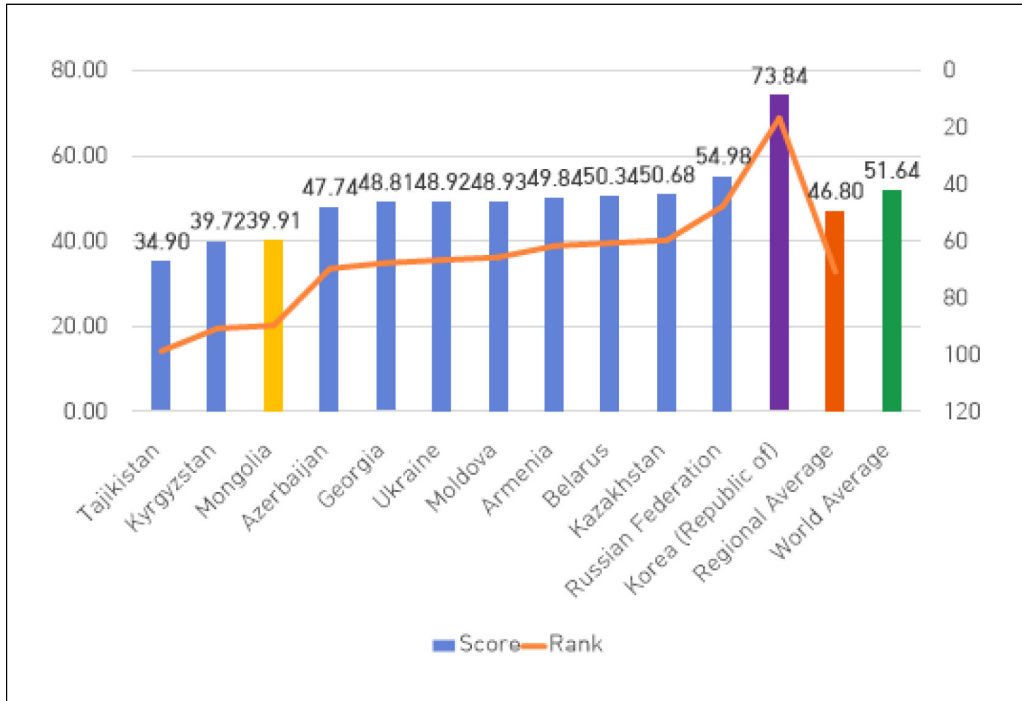
[그림 2] 몽골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자료: Portulans Institute (2019)

4) 2002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하던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는 2019년 공식적으로 Portulans Institute(PI)에게 발행권이 넘어감. PI는 지수 명칭을 Network Readiness Index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지수 또한 기존의 환경, 준비, 활용, 영향 지수에서, 기술(Technology), 사람(People), 거버넌스(Governance), 영향(Impact) 지수로 새로이 구성하며, SDGs 이행, 미래기술, 디지털경제 등을 결정요인으로 포함시킴

[그림 3] 신북방 국가 네트워크준비지수(NRI) 비교



자료: Portulans Institute (2019), 재구성

- 주 1. 신북방 대상국가 중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NRI 수치가 없어 포함되지 않음
- 2. 신북방 대상국가 중 중국(동북3성)은 중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함

신북방 국가들 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은 60위 아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은 동 지역 내에서도 하위권 세 개 국가에 속한다.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NRI가 세계 평균 수치(51.6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북방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ICT 발전 경쟁력 및 잠재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ICT 시장 현황

몽골의 통신 시장은 다수의 통신사들 간의 독과점 없는 자유경쟁 시장이다. 가입자들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케이블 또한 점차 외곽 시골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무선 브로드밴드의 성장은 몽골 전반적인 브로드밴드 및 통신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무선 기반의 통신시장을 형성하고, 몽골의 디지털경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난 5년간 몽골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의 큰 원인 중 하나는 2014년 Skymedia社의 공격적인 번들서비스 마케팅에 인한 일시적인 유선 가입자수의 증가로 파악된다. 그러나 유선통신 서비스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이동이 지속되면서, 향후 2023년까지는 유선통신은 빈약한 성장이 예상된다.

몽골 정부는 ICT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1994년 ITU의 도움으로 진행된 ‘몽골 정보통신 마스터플랜’은 몽골의 ICT 분야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통신 시장의 자유화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보통신의 확장 및 개혁은 몽골의 경제 발전 전략의 주춧돌이 되었다.

1996년 시작된 ‘몽골 발전 개념’에서는 향후 15~25년간 국가의 통신 분야 발전을 목표로 ‘몽골 정부 행동계획’안에 다양한 세부 사업을 통해 과학, 특허, 저작권, 기술이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담고 있다.

몽골의 ‘몽골정부 행동계획 2008-2012’는 모든 정부기관에 모든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몽골정부 행동계획 2016-2020’은 단기간 내의 경제 활성화, 사회부문 성장 촉진, 국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며, 세부 계획 중 과학정보기술혁신 부문은 글로벌 발전 트렌드에 발맞춘 과학부문의 관리 및 구조조직 능률화, 성과중심 자금지원 시스템 소개, 지식기반 혁신·기술·생산 발전, 과학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한다.

몽골 정부는 2016년 발표한 ‘몽골 지속가능 개발 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을 통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의 7번째 목표에서 IT와 이동통신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 지역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설치할 확장시키고 국가 차원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글로벌ICT포털, 2019).

한편, 몽골 정부는 기존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률들이 디지털경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청(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CITA)⁵⁾과 통신규제위원회(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CRC)⁶⁾를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으로 몽골 정보통신기술청(CITA)은 2019년 정보통신정책 연구원과의 협력 하에 정보보안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0년 중으로 법안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⁷⁾

〈표 1〉 몽골 주요 ICT 지표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선통신	가입자 수(천 명)	175.7	228.3	225.6	225.3	292.6	369.9
	100명당 가입자 수(명)	6.10	7.77	8.53	7.37	9.40	11.67
이동통신	가입자 수(천 명)	2,878	3,027	3,068	3,368	3,886	4,222
	100명당 가입자 수(명)	99.85	102.96	102.33	110.18	124.81	133.18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천 명)	139.7	197.2	197.2	226.1	285.1	306.1
	100명당 가입자 수(명)	4.85	6.71	6.94	7.40	9.16	9.66
인터넷	사용자 수(%)	17.70	19.94	22.50	22.27	23.71	-

자료: ITU(2019), 재구성

1) 몽골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현황

몽골의 모바일 시장은 성숙도에 비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거의 100%에 다달았던 2013년에 반해 이동통신 가입자가 4백 22만 명에 달했던 2018년의 보급률은 133%였다. 몽골 모바일 시장은 강한 지역 경쟁으로 인해 고도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5%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몽골에는 MobiCom社, Unitel社, SkyTel社, G-Mobile社의 4개 이동통신사가 있다.

5) 몽골 정보통신기술청(CITA)은 총리 산하 기구로 몽골 ICT 정책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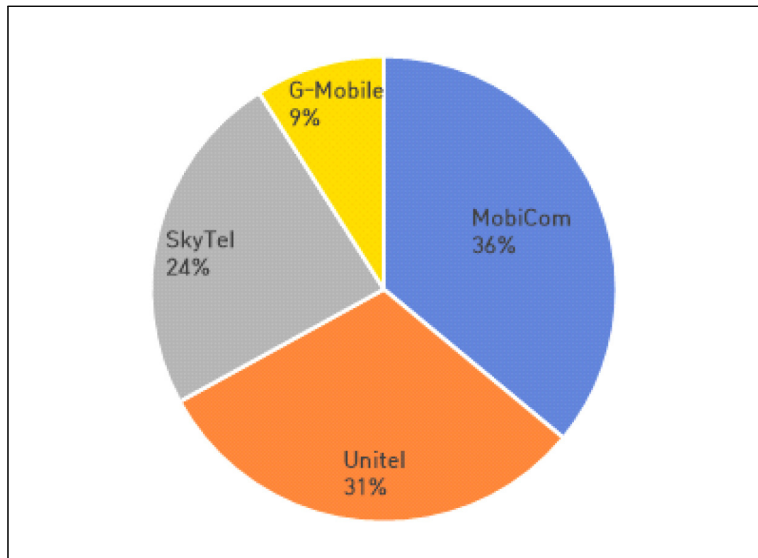
6)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는 ICT 분야 독립 규제기관

7) KISDI는 2019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CITA와 ‘몽골 국가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였음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몽골 가정의 97%가 휴대폰이 보급된 2014년을 기점으로 100명당 가입자 수가 100명을 초과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구 범위 또한 3G가 보급된 2009년과 LTE가 보급된 2016년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MobiCom社가 1996년 처음으로 GSM 서비스를 개시한 것을 기점으로, Skytel社는 CDMA 서비스를 3년 뒤에 시작하였다. Unitel社의 GSM 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시작하였고, 뒤이어 G-Mobile社가 CDMA 네트워크를 2007년부터 제공하였다. 각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의 선택은 2개의 CDMA, 2개의 GSM 이동통신사라는 몽골의 통신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몽골의 통신규제위원회(CRC)는 2016년 MobiCom社, SkyTel社, Unitel社에게 4G LTE 라이선스를 발급하였고 세 통신사 모두 2017년에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림 4] 몽골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



자료: BuddeComm (2018)

2) 몽골 유선통신·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몽골의 인터넷은 1995년 MagicNet社의 서비스 개시로 시작되었다. 추가적 인터넷 연결은 캐나다 기반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의 위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으로 몽골의 교육 기관들에 최초로 무료 인터넷이 보급되었다.

2001년 Mongolia Telecom社와 한국의 KT가 DSL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몽골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몽골의 모든 주요 ISP들은 2004년에 DSL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몽골에서는 DSL, 광대역, WiFi, WiMAX, 3G 모바일 그리고 VSAT 등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다양한 ISP⁸⁾에서 제공한다.

몽골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브로드밴드 가입자 중 84%(2015년 기준)가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다수가 전통적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브로드밴드 상품보다는 모바일 제품을 선호한다.

1995년 Mongolia Telecom社의 지분을 40% 매입했던 한국 KT는 2017년 몽골 정부에 이를 다시 매각하였고, 현재 Mongolia Telecom社는 몽골의 최대 유선통신사이다. 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몽골의 유선통신 시장은 5개의 통신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쟁의 정도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모바일 가입자로 인해 유선통신의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몽골의 통신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광섬유 통신망을 33,000km 이상 깔았으며, 이 중 반 이상은 최근 5년간 설치되었다. 몽골은 이러한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모든 마을(soum)⁹⁾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몽골 내 광섬유 통신망의 절반 이상은 국영 정보통신 네트워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네 개의 초소형 지구국 사업자들은 지방지역에서 운영된다. 국외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하여 아시아-유럽 육로 네트워크와 해저 케이블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이루고 있다.

8) Unitel, Skytel, G-Mobile, Cyber Security Authority, Railcom, Optinet, Erdemnet, Sky C&C, Sansar, MTC, MagicNet, BMD, Boldsoft, H&I, Asiatel, Gnet, Yokozunanet

9) 솀(soum)은 몽골 내 행정구역으로 마을 단위이며, 한국의 동의 개념에 해당

3. 결어

2020년은 몽골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몽골에 공식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협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국가로 몽골과 경제·에너지 등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동시 수교국이자,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몽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몽골의 ICT 환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자 하였다.

몽골은 '몽골 정부 행동계획 2016-2020' 및 '몽골 지속가능 개발 비전 2030'을 통해 ICT 인프라 확대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ICT를 활용한 성장 촉진 및 국민 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 및 투자를 통해 공공데이터 현대화 작업 및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몽골은 경제발전 및 사회적 성장에 있어 ICT 분야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프라 및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다변화로 인한 신북방정책의 강화로 한국과 몽골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고상원 외(2019), 『Policy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CERT in Mongolia』, 정책자료 19-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16), “몽골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Mongolia)”
- 글로벌ICT포털(GIP) (2019), “ICT & Broadcasting Mongolia Market Report”,《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유태경 · 송영민(2018),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6. 콜롬비아 ICT 환경 분석”,《정보통신방송정책》, 제30권 16호 통권 67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 22~38.
- BuddeComm (2019). *Mongolia: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 - Statistics and Analyses*. BuddeComm
- ITU (2019) *Country ICT Data ITU (until 2018)*. ITU
- Portulans Institute (2019). *The Network Readiness Index 2019: Toward a Future-Ready Society*. Portulans Institute.
-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2016).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2001). “Law of Mongolia on Communications.”
- UN (2018). *E-Government Survey 2018*. UN
- UNIDIR (2018) “UNIDIR Cybersecurity Policy Portal - Mongolia”. UNIDIR, 2019. 5. 23., <https://cyberpolicyportal.org/en/states/mongolia>
- CRC (2019) “National Programs of Mongolia”. 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of Mongolia., 2019. 12. 10., <http://www.crc.gov.mn/en/k/1g/1q>
- 한국국제협력단(2019), 『국가별 현황보고 시리즈-몽골 공공행정 현황』,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0),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몽골』, 한국수출입은행.

- 《연합뉴스》(2020. 5. 22.) “북방위원장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협상 시작’”
- 《파이낸셜 뉴스》(2019. 3. 26), “몽골 순방 ‘이낙연 산업·환경 등 협력 확대, 동반자관계서 격상’”
- 《연합뉴스》(2020. 3. 26.) “문대통령, 몽골에 수교30주년 서한…신북방정책 협력 강화”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bukbang/>
- OECD. 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 CITA 홈페이지: http://cita.gov.mn/?page_id=9575&lang=en
- CRC 홈페이지: <http://www.crc.gov.mn/en>